

대학수학능력 시험 '한국사' 문제지 삽화

About Illustrations in the 'Korean History' Section of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백단하 Baek Danha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연구 목적
 - 연구 대상
 - 연구 방법
-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
재지정과 평가 방향
- 수능 한국사 문제지 삽화와 기능
 - 수능 출제자와 응시자에게 미치는
삽화의 기능
 - 기출 문제지와 삽화의 기능
- 수능 한국사 문제지 삽화의 구성 요소와
특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 항목과
'현재적 시점'의 표현
 - 시험을 응시하는 시점에서의 생활
환경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묘사
 - 수험생에게 익숙한 학습 환경에
대한 묘사
- 결론

지도교수: 오주은
Supervisor: Oh Jooeun

1. 서론

1.1. 연구 목적

그동안 한국의 교육 자료를 시각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의 대부분은 시기적으로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70년대에 발행된 교과서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의 범위를 벗어나 ‘동시대 한국의 디자인 문화’라는 관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한국사 문제지에 시각화된 삽화의 기능과 특징을 살펴본다. 연구자는 한국디자인사 수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역사 연구를 ‘우리의 삶을 둘러싼 문화적 양식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비평적 행위’로 규정하고, 디자인 전공자로서 한국디자인사 연구 범위의 확장을 위한 아카이브 작업을 시도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동시대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라는 뜻으로 현재 시점을 역사에 포함하는 연속적인 시대 개념이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시대’가 지닌 이러한 의미는 역사 연구의 대상을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으로 넓히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

Introduction

The research on Korean educational materials from a visual perspective has largely been limited to specific historical periods. However, it is crucial to extend our focus beyond these boundaries and analyze th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illustrations on the CSAT Korean history question paper from the standpoint of contemporary Korean design culture. As a design major, I am dedicated to broadening the scope of Korean design history research. The term “contemporary” refers to the present era, and by

choosing to focus on this, we can expand the subject of historical research to encompass the space and time of the here and now. This research will be essential in understanding the cultural patterns surrounding our lives and will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field of design history.

1.2. 연구 대상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한국사가 필수 응시 과목으로 재지정된 해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한국사 모의 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의 삽화이다. 여기서 모의 평가 문제지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6월과 9월 모의 평가 문제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언급되는 ‘수능 한국사 문제지’라는 용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매년 6월과 9월에 시행되는 모의 평가 문제지 모두를 포함한다.

수능 한국사 문제지 삽화에 주목한 이유는 첫째, 한국 사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가 가지는 상징성에 기인한다. 둘째,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경우 다른 과목의 수능 문제지와 비교할 때 삽화의 활용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사 수업의 목표는 시간의 흐름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연대기적 사고를 함양하는 데 있다.¹⁾ 중등 교육과정의 시험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의 선후 관계와 시대적 맥락을 나타내는 삽화가 시험 문제지에 필수적인 시각 요소로 배치된다. 즉 역사 교과서와 시험 문제지에는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을 시각화한 다양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그

1)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88-91

중에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으로 정의되는 삽화의 활용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삽화는 단순히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보조적 수단이 아니다. 활자화된 내용의 추상성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독립된 시각 언어의 기능을 수행한다.

1.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 기반하여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 이미지를 다음과 같은 문헌 연구에 기반해 분석했다. 우선 1차 자료인 한국사 모의 평가(6월, 9월) 및 수능 평가 문제지를 연도별로 수집했다. 총 24점의 문제지에 인쇄된 개별 삽화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1차 자료의 수집이 연구 자료의 단순한 양적 확보가 아니라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질적인 사료(史料)'로서의 가치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임을 알 수 있었다. 1차 자료의 수집과 기록에 이어 2차 문헌 연구는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으로 재지정된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고 이를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정리하는 것이었다. 검토된 주요 자료는 연구 범위에 해당하는 수능 제도와 관련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행한 문서이다. 동시에 수능 제도와 시험 문제를 주제로 한 선행 연구 논문도 살펴보았다. 이들 문헌은 한국사 수능 문제지에 인쇄된 삽화의 기능과 시각적 구성 요소가 지닌 외재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텍스트로 작용했다.

2. 한국사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 재지정과 평가 방향

한국사는 2004년도까지 수능 필수

과목이었으나 2005학년도부터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되었다. 그런데 이후 한국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과 낮은 이해도가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젊은 세대의 역사 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차원에서 한국사를 다시 수능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게 된다.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은 발화성이 큰 정치적, 교육적 이슈와 맞물려 오랫동안 이어지다가, 교육부가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재지정하면서 종결된다.

교육부가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재지정하면서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평가 목표와 평가 항목, 출제 난이도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한국사 시험의 평가 목표를 대입 전형 자료로서의 변별력보다는 기본 소양 검증을 위한 것으로 설명했고, 평가 항목으로는 역사적 사고력을 판단하기 위한 6가지 행동 영역을 제시했다. 6가지 행동 영역은 “1)역사 지식의 이해, 2)연대기적 사고, 3)역사적 상황 및 쟁점의 인식, 4)역사적 탐구의 설계 및 수행, 5)역사 자료의 분석 및 해석, 6)역사적 상상 및 판단”이다. 평가원은 이와같은 세부적인 평가 항목을 공개하면서 이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연대기 파악을 기초로 하면서 자료에 나타난 상황이나 쟁점을 인식·분석하고, 탐구 절차를 수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사적 사고력을 고루 측정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평가 난이도는 한국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한 문제 출제를 고지했다.²⁾

2) 박진동 외, 2014,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화에 따른 교사 연수 자료』, 수능 CAT 2014-15, pp.5-13

3. 수능 한국사 문제지 삽화와 기능
앞에서 살펴본 평가원의 발표 내용 중 주목되는 것은 “자료의 분석과 해석” 능력, “자료에 나타난 상황이나 쟁점을 인식·분석하고”와 같은 평가 항목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수능 한국사 문제지 삽화의 활용 빈도 증가와 기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3.1. 수능 출제자와 응시자에게 미치는 삽화의 기능

무엇보다 출제자는 삽화를 통해 수능 응시자의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원이 제시한 “자료의 분석과 해석” 능력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다. 즉 출제자는 삽화를 활용하여 시험 응시자의 연대기적 사고 능력과 역사적 쟁점에 대한 인식을 평가할 수 있으며 역사적 상상력과 판단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로 2017학년도 이후 한국사 수능 문제지에서 삽화 활용의 빈도는 증가했다. 또한 삽화와 문제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텍스트 자료를 활용한 문제에 비해 삽화를 활용한 문제가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³⁾

한편 수능 응시자의 입장에서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는 수능 출제자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에게 제시되는 문제지의 삽화는 대학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출제자의 의도와 답안을 품고 있는 시각적 텍스트로 기능한다. 즉 응시자는 한국사 시험지에 활자화된 문항에 대한 답안을 문제와 연동된 삽화를 통해 찾아야 한다. 이때 삽화는 수험생에게 낯선 이미지가 아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 반복해서 본 삽화들과

연결되며 문제 풀이의 결정적 단서를 지닌 시각적 텍스트로 기능한다.

3.2. 기출 문제지와 삽화의 기능

이렇듯 출제자와 응시자 모두에게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는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기출 문제지의 삽화가 소비되는 방식을 통해 영향의 밀도를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능 고사장에서 배부되는 수능 한국사 문제지는 수험생의 대학 수학 능력과 역사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다수의 삽화를 배치한다. 그리고 수험생은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여 문항과 연결된 삽화를 면밀히 살피게 된다. 이 순간 수능 당일 응시자가 보게 되는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는 모든 수능 과목의 문제지가 그렇듯이,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 제도의 권위를 강하게 발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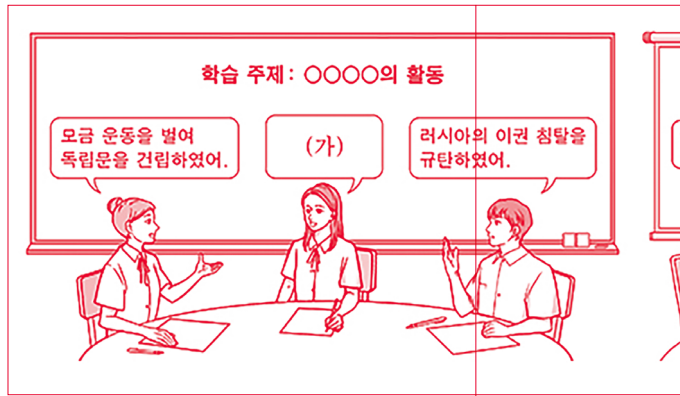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특성의 문제지가 표출하는 권위는 수능 시험 종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기출 문제’ 또는 ‘족보’라는 이름의 또 다른 권위를 가지며 수능 교육 시장에서 공적, 혹은 사적으로 대량으로 소비된다. 수능 한국사는 해마다 시험 범위나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누적된 기출 문제에 의해 일정한 경향성이 형성된다. 자주 출제되는 내용과 유형, 자료에 의해 수능 문제는 표준화된다. 학교 현장과 사설 학원에서 기출 문제 풀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기출 문제가 다음 연도 수능 문제의 난이도와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이다. ‘기출 문제’는 수능 대비 자료로서 독보적 위상을 가지며 매년 새롭게 유입되는 수험생에 의해 끊임없이 소비된다. 이 과정에서 삽화 중심의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로 다시 범주화되어 다양한 재편집의 과정을 거쳐 유통된다.

3) 오정현, 2011, “일제강점기를 내용으로 하는 평가 문항 분석과 역사상”, 『역사교육논집』 46, p.148

4. 수능 한국사 문제지 삽화의 구성 요소와 특징

위와 같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출제된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적 수단의 그림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능 출제자와 응시자 모두에게, 문제 출제와 풀이를 위한 매우 기능적인 시각 언어로 작용한다. 즉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는 그 자체로 ‘시각 이미지 형식의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크게 인물, 배경, 매체를 구성 요소로 한 시각적 조합의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삽화에는 주로 학생, 교사, 도슨트, 역사적 인물이 등장한다. 이때 인물의 직업은 의복을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현된다. 예컨대 교사로 등장하는 인물은 정장 혹은 정장에 가까운 스타일의 옷을 착용하고, 도슨트는 명찰과 마이크를 사용한다. 둘째, 문제지의 삽화에는 대체로 배경 이미지가 없다. 이는 문항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각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항에서 제시한 내용을 찾거나, 특히 삽화 내에 삽입된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경우, 여백의 이미지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문항의 문장과 삽화를 구성한 시각적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예외적으로, 문제 풀이의 단서가 되는 특정한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기도 한다. 셋째, 삽화에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와 인쇄 매체가 등장한다. 인쇄된 용지인 시험지 위에 디지털 매체와 인쇄 매체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구별하여 역사 탐구 방식의 다양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다음은 이러한 공통된 시각 요소를 지닌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한 삽화는 총 24점이다.



[그림 1] 계열에 따른 교복의 변화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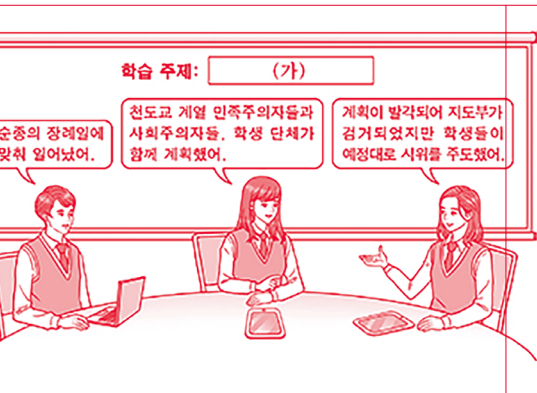


[그림 2] 계열에 따른 교복의 변화를 반영



[그림 3] 증강 현실을 활용한 역사 자료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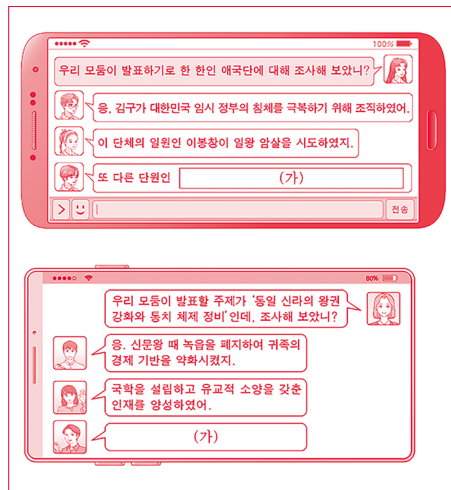
특집 기획 연재 Special Features Se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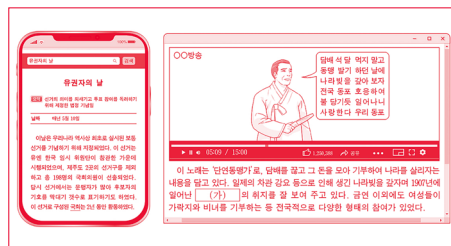
4.1.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 항목과

‘현재적 시점’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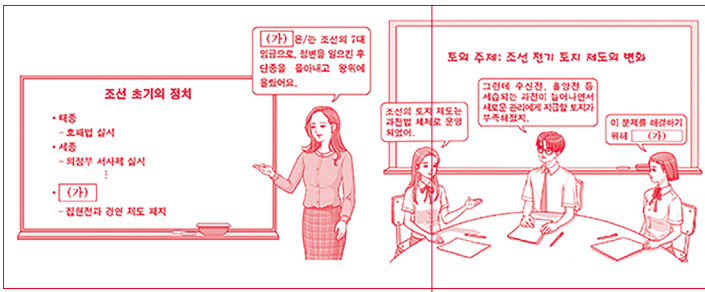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수능 한국사 기출 문제는 ‘과거-현재-미래’의 연결성이라는 역사 과목의 특성을 기반으로 현재 사회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출제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는 특히 우리 사회의 현재적 모습을 적극 반영하는 특징을 나타낸다. 즉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에는 정답을 추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당대의 현실 세계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습이 표현된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수능 한국사 평가 항목인 ‘6가지 행동 영역’을 ‘현재’라는 시점에서 판단하기 위한 시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로서의 과거를 단순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역사화 된 과거의 텍스트’를 탐구하고 해석하고 상상하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시각 요소인 것이다. 수험생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생활 환경이 묘사된 삽화에 의해 ‘현재적 시점’에 시선을 고정하고 문제 풀이의 시간을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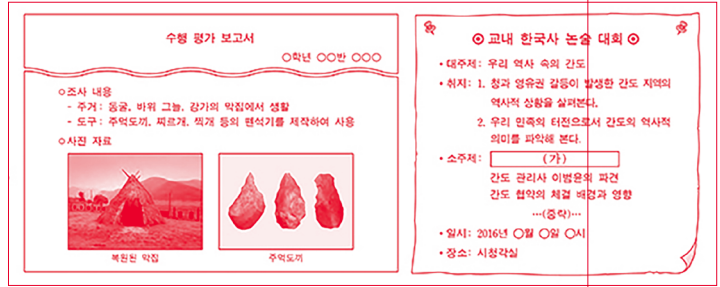
[그림 4] 디지털 기기 작동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출제 문항



[그림 5] 삽화 자료에 표현된 디지털 매체



[그림 6] 선생님의 강의와 조별 토의가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



[그림 7] 대학입학 내신 전형에 영향을 미치는 수행 평가 보고서 작성 활동

4.2. 시험을 응시하는 시점에서의 생활 환경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묘사

시험을 응시하는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학교생활의 모습과 의복, 기술이 삽화에 묘사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토의하는 삽화에서 학생의 교복은 시험을 응시하는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6월 모의 평가 속 인물은 하복을, 9월 모의 평가에서는 춘추복, 수능에서는 동복을 착용한다. [그림 1]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달라진 공교육의 모습이 묘사되었다. 2021학년도 수능 이후로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비대면 수업을 듣는 삽화가 증가했다. [그림 2] 또한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는 첨단 기술을 장착한 사물을 활용하는 학습 환경을 묘사한다. 메타버스와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으며 온라인 백과와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묘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3], [그림 4], [그림 5]

4.3. 수험생에게 익숙한 학습 환경에 대한 묘사


수능 한국사 문제지의 삽화에는 수험생의 학습 경험과 관련된 익숙한 활동과 사물이 등장한다. 선생님이 칠판 앞에서 강의하고, 조별로 토의하고, 수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대회를 준비하는 행위는 수능 응시 대상인 고등학생에게 일상적인 활동이다. [그림 6], [그림 7] 또한 교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분필, 칠판지우개, 압정, 클립, 테이프 등 문구용품들이 표현된다. 이는 사실 평가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수험생에게 이러한 이미지의 삽화는 수능 대비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행하고 접했던 행위와 사물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문제 풀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수능 필수 과목으로 재지정된 이후 한국사 삽화는 현재 시점에 기초하여 역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인식되어 익숙한 일상을 투영한 이미지로 형상화됐다.

출제자는 연대기적 사고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역사적 서술을 삽화에 내재하고, 이는 응시자에게 문제 풀이의 단서를 지닌 시각적 텍스트로 작용한다. 공적인 문제지를 통해 유통된 삽화는 지속적인 소비가 이뤄지며 유형화된다. 이러한 역할 속에서 한국사 삽화는 수험생이 경험하는 실제 경험과 환경을 이용하는 시각적 특징을 띤다. 인물, 배경, 매체를 성분으로 현실 감각을 표상하며 그 자체의 독립적인 표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맥락을 지닌 이미지로서 수능 문제지 삽화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구별되고, 삽화의 일차 목적에서 나아가 시각적 텍스트로서 기능과 특징을 알아낸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 제시된 여러 특징은 현실 세계에 실존하는 요소를 반영한다는 시각성으로 귀결되어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수능 삽화가 한국 디자인 문화 요소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다양한 담론에서 시각성을 고찰하는 심층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3), 『역사교육 강화방안(안)』, 보도자료
- 교육부, (2013),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 보도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에 따른 한국사 출제방향 및예시문항 등 공개』, 보도자료
- 교육부, (2014),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22),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김수미, (2014), 「한국사 과목의 고난도와 저난도 문항 특성 분석: 2013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제19호, 한국역사교육학회
- 박진동, (2011),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문항 난이도 특성 분석」, 『역사교육』, 제119호, 역사교육연구회
- 박진동 외, (2014), 『2017학년도 수능 한국사 필수화에 따른 교사 연수 자료』, 수능 CAT 2014-15
- 신유아, (2015), 「2017 수능 필수 ‘한국사’ 문항의 난이도와 학교 수업」, 『역사교육』, 제135호, 역사교육연구회
- 오정현, (2011), 「일제강점기를 내용으로 하는 평가 문항 분석과 역사상」, 『역사교육논집』, 제46호, 역사교육학회
- 이해영·문영주, (2017), 「고등학생의 문항 풀이 과정으로 본 수능 필수 한국사의 출제 방향」, 『역사와 담론』 제82호, 호서사학회
- 정은경·박현숙,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필수화에 대한 역사교사의 인식과 교수·학습의 변화」, 『교사교육연구』, 58권 2호,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문항 유형으로 알아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학습 안내』, 수능 CAT 2014-9